

#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802억 원 증액

## 정부추경으로 보통교부금 1,327억 원 지원받아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기경예산 대비 802억 원(2.1%)이 늘어난 3조 9,9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일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목

적의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와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 추경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편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1,327억 원과 특별교부금 등 268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재 793억 원을 감액하여, 조명

개선(석면함거 포함) 560억 원, 이중 창 개제 137억 원, 화장실 개선 52억 원, 내진보강 23억 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태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비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하였다.

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일선 학교에 교부하여 연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3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경상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하여 10월 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문화와 경제를 함께 싣고 떠나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남아 한류 중심' 베트남 진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와 경제를 함께 싣고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인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으로 진출한다.

경북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청 회관까지 양국 간 상호이해와 우호관계 증진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내년 11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의 중심도시 호찌민에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통해 동남아시아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확대시킨다는 비전을 담고 그 출발점이 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이율리 이날 경북도와 호찌민 시는 양 지역의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제협력 강담회'를 열고 한-베트남 교역 확대, 호찌민 진출 지역 기업 지원, 경북기업의 호찌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년 행사를 계기로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한류 우수상품전, 한-베트남 비즈니스 페어, 한류 통상로드쇼, 경북 농식품을 활용한 K-Food 홍보관, K-Beauty 프로모션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행사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딘 라 탕(Dinh La Tang) 호찌민 공산당 당서기, 장관 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최양식 경주시장, 대경교류협회가 맡고있는 신일회 계명대 총장, 레 반 쿼아(Le Van Khoa)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호찌민 당 관계자, 호찌민 시 관계자, 호찌민 언론사 등 30여 명이 방한해 행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열린 경제협력 강담회에는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구미의 삼성전자를 위

LG그룹 일원, 포항의 포스코 관계자,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경북지역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열거를 더했다.

한편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행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2017년 11월에 약 25일간 개최 예정이다 ▲행사주최는 호찌민시와 경상북도-경주시가 공동주최하며 화합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는다 ▲행사장소와 실행프로그램은 양측의 상호 가능한 여건에 따라 상호동의하여 결정한다 ▲양측의 행사와 실행프로그램은 상호동의하에 조정하며 공연·전시·영상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는 "베트남과 한국의 수교를 맺은 지 사반세기에 불과하지만 이들과 교류를 넘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5급 승진임용 대상자 청렴도 평가

## 관리자로서의 청렴자질 평가, 기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 탈락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9월말까지 2017년 5급(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105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어 9월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

되는 시점에 부응하는 시책이다.

평가내용은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승진임용대상자들의 윤리성, 책임성, 직무정렬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기존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임용에 탈락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세무제반, 고공벌급 위반, 행동경엄 위반 등의 감정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영우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청렴도 평가는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013년부터 실시한 시책으로,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발굴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버스 타고 즐거운 영어 세상으로 Go! Go!

## 경북청도초, 2016 찾아가는 영어체험 실시

청도초등학교(교장 남석진)는 9월 19-23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 중심 영어 학습을 위해 'Fun English Bus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은 청도초등학교의 역점 사업인 행복오다(五

多) 중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고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는 드러나 다(多)의 추진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비롯해 이해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영어 체험 부스가 마련된 버스 안에서선 원어민 영어 교사

와 함께 실용 영어를 활용한 활동적인 게임과 체험을 하였으며, 직접 만든 여권을 이용하여 마일리지카드를 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4학년 김민주 학생은 "버스에서 영어 공부를 하니깐 더 재밌고, 여권을 만들어 활동해서 진짜 여행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석진 교장은 "Fun English Bus가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갈 수있고 내용과 재미와 즐거움을 모두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대장을 상실한 관리하여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통대장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동보건문제 1위로 지칭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율 비교

담배가격	흡연율
대한민국 2,500원	대한민국 23.0%
영국 12,000원	영국 13.0%
스웨덴 18,000원	스웨덴 11.8%
일본 10,000원	일본 12.8%
네덜란드 8,000원	네덜란드 12.0%
프랑스 9,000원	프랑스 26.4%
미국 11,500원	미국 21.3%
아일랜드 14,500원	아일랜드 11.0%

각국 담배 광고문구 비교

한국: RAISON  
호주: SMOKING CAUSES MOUTH CANCER  
유엔연합: FUMANDO SE PUERE MORIR  
우루과이: FUMANDO SE PUERE MORIR

# '잠자는 책을 꿈꾸는 책으로'

## 안윤식 전경북도청 정무부지사 경북교육청에 새마을 운동 도서 463권 전달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9일 분청 점권실에서 개최된 도서 기증식에서 안윤식 전경북도청 정무부지사로 부터 새마을운동 도서 463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새마을 운동의 역사와 세계화'는 안윤식 전경북도청 정무부지사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경험을 담은 기록으로, 발굴된 사례와 소개념 시책의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기증받은 도서를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해 교육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책은 멀리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하는 청소년들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서기증 운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 하고 있다.

안윤식 전경북도청 정무부지사는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결어은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고 현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권의 책이 모여 학생의 꿈을 깨운다. 꿈을 나눠 주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우 교육감은 "책 읽기에 좋은 가을, 잠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가까이 소중한 책을 기증해 주신 안윤식 전경북부지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를 기울이고 있으며, 도서기증 운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 하고 있다.

안윤식 전경북도청 정무부지사는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결어은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고 현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권의 책이 모여 학생의 꿈을 깨운다. 꿈을 나눠 주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우 교육감은 "책 읽기에 좋은 가을, 잠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가까이 소중한 책을 기증해 주신 안윤식 전경북부지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농촌공동체 복원을 꿈꾸다

## 경북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

경상북도는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나날이 쇠퇴하는 농촌공동체 복원을 위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민 배후마을과 연계해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소프트웨어를 집중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행해 읍·면 소재지를 사람이 모이는 소도시(small town)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아 주기에 나섰다.

이 사업은 기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자원을 빛내듯 경제·문화·복지·관광 등 모든 생활 가능 분야를 네트워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및 소프트웨어를 상호 연계해 도시지역의 소동중구인 읍·면 소재지의 입체적 개발로 농촌

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철곡 북삼읍, 고령 다산면 소재지가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신도시주로 선정되어 지부별 80억 원을 투입해 일회성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중심지 접근성 향상 사업, 배후마을 활성화 사업 등 지부별 고유의 특성에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더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철곡군(북삼읍)의 경우 중점 자원인 인문학과 도시 주변의 젊은 지역 인력을 활용해 읍·소재지 내 평생학습 센터, 인문학 거리 및 광장을 조성한다.

한편 지역의 근대자원인 새마을역사거리와 주민참여형 관광도 등 기

반시설을 확충하고 이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배후마을에 전달되도록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고령군(다산면)의 경우 인근의 강정보와 대구시 근교의 이점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각종 문화활동의 중심지인 문화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색(生色)나는 다채로운시설 운영, 이동하는 도서관 지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서비스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축수산물국장 은 "최근 지방소멸에 다양한 연구에서 보듯이 지방의 위기를 누누나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 소재지의 기능 복원을 통해 기성세대에게 정중동(正中動)의 미학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자 젊은이들이 머무는 수 있는 농촌향토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